

\* pc기준으로 작성되어있습니다.  
모바일 열람 시 인쇄 레이아웃을 켜주세요.

## Catchphrase

# 막을 내리자, 나의 주홍빛 음표.

이제 그만 끝내자

▶ [요네즈 켄시] 안녕, 또 언젠가! (さよ—ならまたいつか!) | MV 한국어 가사/발음

Let's close the curtain, My scarlet note!

ㅇㅇ, ㅎ. \* ◆ \* < 이름 > \* ◆ \* . ㅎ, ㅇㅇ

## “ 안녕! 그 쪽은 나를 좋아해요? ”

싫어한다면 이번에 좋아해보는 건 어때요?

ㅇㅇ, ㅎ. \* ◆ \* < 이름 > \* ◆ \* . ㅎ, ㅇㅇ

## 한규리

별의 빛남이라는 뜻의 이름  
아마 태몽을 바탕으로 이름을 지은 듯 하다.

엄마의 성을 따른 그의 첫 이름  
별처럼 밝은 재능으로 빛이 되어라 라는 의미

ㅇㅇ, ㅎ. \* ◆ \* < 나이 > \* ◆ \* . ㅎ, ㅇㅇ

°°, `°. \* ◆ \* < 성별 > \* ◆ \* . °°, °°

XX

°°, `°. \* ◆ \* < 키/몸무게 > \* ◆ \* . °°, °°

152/45

°°, `°. \* ◆ \* < 성격 > \* ◆ \* . °°, °°

활기찬

호기심이 왕성하고 가식이 없는 그는 인간 비타민이라고 불리어도 좋을만큼 밝은 에너지를 뿌리고 다닌다. 체력이 좋은지 이리저리 뛰어다녀도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으며 한시도 가만히 있을 줄은 모른다.

외향적인

활기찬 성격을 바탕으로 그는 사교성 또한 매우 좋은 쪽에 속한다. 처음보는 사람에게 익숙하게 말을 걸기도 하고 지나가는 강아지하고도 친구를 먹을 만큼.. 하지만 이런 성격을 부담스러워하는 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싫다는 의사를 한다면 시무룩해지긴 하지만 더이산 치근대거나 하지는 않는다.

긍정적인

항상 웃고 있는 제 입꼬리마냥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누군가에게는 생각이 없어보인다는 말을 듣기도 하지만 그는 항상

“흥! 그렇게 생각하라고 해! 부정적이게 쳐져 있는 것보단 낫거든?”  
하고 답한다.

## 순진한

마음이 꾸밈이 없고 순박한 어린아이를 닮은 듯한 그는  
어수룩한 모습을 가끔 비치며, 사람을 너무나도 쉽게 신뢰하며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 강박적인

‘내가 아니면 안돼.’

엄마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힘으로 뭐든 해내야했기 때문에  
엄마와 관한 일이라면 스스로 해결해야한다는 강박이 있다.  
아주 병적일 정도로.

∞, °.\*◆\* < L,H,S > \*◆\*.°∞

L

음악, 스케이트 보드, 작고 귀여운 디저트들!

그리고 풍선껌, **엄마**

H

답답한 모든 것! 큰 소음, 공부

S

좁고 어두운 공간

덩치가 큰 남성, **고함소리**

∞, °.\*◆\* < 잃어버린 꿈 > \*◆\*.°∞

내가 유명해져서 꼭 엄마의 빚을 다 갚을거야.  
내가 해야만 해, 오로지 나의 힘으로.

-

소형기획사의 배우였던 그의 친모는 소속사 사장과 연인이자 채무 관계였다.

그들에게서 태어난 것이 지금의 그.

친모는 아이를 데리고 무책임하게 소속사에서 도망쳤다.

어떻게든 할 수 있을거야!라고 생각했겠지만 친모에게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 빚은 딸이 대신 소속사로 돌아가며 지게 되었지.

“빚을 다 갚게 되면 다시 자유를 찾아주마.”

*응, 그것이 나의 꿈.  
내가 그의 밑에서 살아간 이유.*

°°,`°.\*◆\* < 꿈에 닿을 수 없게 된 이유 > \*◆\*.`°°,°°

-

소속사의 밑에서 개처럼 일해가며 돈을 갚기 시작한지도 12년  
엄마에게 가지도 않고 오로지 돈을 갚기 위해 그 오랜 시간을 보냈다.

올해 봄이었을까 엄마에게서 내려받은 빚을 모두 갚은 날.

한달음에 엄마가 살고 있다는 집에 가며 생각했다.

‘엄마, 드디어 다 갚았어요.’

‘엄마. 나 드디어 해냈어요.’

‘엄마, 결국 제 힘으로 해낸거예요.’

‘엄마, 역시 사람은 긍정적이게...’

...

그곳엔 엄마가 아닌 엄마의 형태를 한 시체가 매달려 있었다.

내 꿈은 이뤄지지 못하고 산산조각 나버렸다.

°°,`°. \* ◆ \* < 꿈을 잊고 싶어 하는 이유 > \* ◆ \* .°,°°

나 다시 노래를 하고 싶어.

-

엄마가 그렇게 돌아가신 이유로 정신적인 충격 탓인지

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노래를 부를 수 없으니 우울이 내 몸에 퍼져갔다. 이대로 살 수 없었다.

노래를 부르는 것이 나에겐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이 세상에 소리를 내고 싶어.

엄마, 미안해.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냐.

나 이제 숨을 쉬고 싶어.

∞,`°. \* ◆ \* < 그 꿈을 바라지 않았다면 지금의 모습 > \* ◆ \* .°` , ∞

엄마! 이거봐! 나, 드디어 단독 콘서트야!

-

어머니가 죽은 이유는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무력감.

만약 그가 오로지 자신만의 힘으로 빛을 갠으려하지 않고

엄마와 함께 힘을 합쳐 빛을 갠었다면

엄마가 죽을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가 노래를 멈췄을 일도 없었을 것이다.

아마, 지금보다 더 빠르게 성장해 밴드계를 대표하게 되었을지도 모르지.

∞,`°. \* ◆ \* < 비밀설정 > \* ◆ \* .°` , ∞

과거

-

소형기획사 소속 배우였던 친모, 친모와 애인이자 채무자 관계인

소속사 사장 사이에서 태어남.

친모는 아이를 가지자마자 소속사에서 도망쳤으며

아이를 낳고 조금씩 이자를 겨우 갠아가며 생활함

아이가 9살일 무렵.

아버지(소속사 사장)이 집 위치를 찾아내 돈을 갠지 않는다면

애라도 데려가겠다하며 아이(규리)를 데려감.

이후 한규리에서 서규리로 개명

노래와 악기, 작곡에 재능을 보여 소속사와 계약(9.5:0.5..)를 맺고  
온갖 학대 속에 거의 갈려 나간 듯이 노래를 만들며 빛을 갠다 밴드로 데뷔.

흉터

-



얇고 긴 물건으로 상처입힌 듯한 흉터들이 팔과 다리에 남아있다.

그는 이 흉터를 보이지 않기 위해 여름에도 팔과 다리를 가리는 옷을 고수하고 있으며

남에게 절대 보여주지 않는 듯하다.

## PTSD

-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학대 경험 탓인지 덩치가 큰 남성이나  
회초리가 바람을 가르는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 Expression

-

그의 웃는 표정은 철저히 교육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로인해 현재 자신의 감정을 표정으로 드러내는 것이 서투르다.

## Sing

-

그에게 노래란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소통수단이다. 노래하는 듯한 말투도 이로인해 만들어진 듯하다.

## Habit

-

불안할 때마다 헤드셋을 쓰는 이유는 아마  
과거 학대의 영향으로 그 때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이다.

## Regret



제일 후회하는 것은 엄마에게 나에게 그만 재촉하라고 신경질을 부린 것.

엄마는 그저 잘 지내냐고 물어봤을 뿐인데..

∞,`°.\*◆\* < 비밀선관 > \*◆\*.°`∞

X

∞,`°.\*◆\* < 소지품 > \*◆\*.°`∞

호신용 나이프